

## 장애 전문 언론의 장애인관 및 시대별 특징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 전문 잡지 “함께 걸음”에 대한 통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전 지 혜\*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

### 《요약》

---

본 연구는 26년간 발행된 장애전문잡지인 <함께 걸음>을 분석하였다. 총 5,717개의 기사 제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5년 단위로 시기를 나누어 장애를 표현하는 논조의 변화 및 장애 전문 잡지로서의 특징 변화를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통계분석 및 맥락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를 표현하는 논조에 있어서는 26년간 대부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패러다임을 고수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시기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함께걸음>은 1980년 후반 강한 장애 인권 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인권운동 고취문헌으로 기능했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운동이 약화되자, 생활밀착형 정보지화 되었으며, 90년대 중후반 경제 위기 및 시민단체의 제도정치화가 나타날 때에는 개인수준에서의 일반 잡지화 되는 경향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 거세지면서, 다시 운동체적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전문 언론의 역할과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장애전문잡지, 장애언론, 사회적 모델, 함께걸음, 장애인권운동, 장애 패러다임

---

\* 제1저자, 교신저자(ikwwjh@hanmail.net)

## 1. 서론

언론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나 정보는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Charlton, 1998). 언론은 주로 인간의 “정상성”을 강조하고,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정신적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는 열등하게 취급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 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특히 비정상성을 대표하는 상징체로서 장애인을 방송이나 언론에서 구경거리로 만들면서, 주류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까지 한다 (Oliver, 1990, Barnes, 1992). 즉 언론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우월과 열등을 나누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우월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경을 하도록 하고 그 형상에 스스로 가까워지도록 애쓰게 하며, 반면에 열등하고 추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면서 비난하거나 동정하고, 동시에 온정적 태도로서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류 언론에 대한 대응으로서, 장애계에서는 주류 언론을 모니터링 하고, 장애인에 대한 호칭에서부터 내용적인 차원에서조차 비하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왔다. 장애인식개선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서도, 방송이나 광고를 통한 차별을 주요한 차별 주제영역으로 다루고 있을 만큼, 언론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작 ‘장애 전문 언론<sup>1)</sup>’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장애를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일반 언론 속에서 장애인이 다루어지는 방식에만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을 뿐, 장애인권운동의 역사와 함께해 온 장애 전문 언론에 대해서는 자체 검열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장애 전문 언론은 1988년 세계장애인 올림픽을 전 후로 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소 높아지면서 등장했다. 1988년 3월에 <함께걸음>이 창간되었으며, 1989년에 <장애인복지신문>과 <장애인 신문>, <세계장애인 신문> 등이 연이어 주간지 형태로 나왔고 1994년에 <장애복지21> 신문도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중에 <함께걸음>, <장애인복지신문>, <장애인신문>만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다. 인터넷 시대로 재편되면서, 장애 전문 언론도 웹상에서 기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장애인 신문”으로 검색하면, 27군데<sup>2)</sup>의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1) 장애 전문 언론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해주는 장애인 전문 신문이나 전문 잡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편성되거나 장애관련 소식을 전하는 방송도 포함되며 ‘장애 전문 언론’이라고도 한다(장애인먼저실천본부, 2010). 그러나 ‘장애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장애와, 사회, 그리고 그 속의 장애인의 관계를 아우르는 모든 소재를 언론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하고,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전문 언론’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였다.

언론을 볼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짧지 않은 장애 전문 언론의 역사에 비하여, 이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행처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 전문 언론에 대한 평가까지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되는 장애 전문 언론의 역사를 볼 때, 이제는 장애 전문 언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특히 장애 전문 언론은 기존의 언론과는 목적과 역할 면에서 구별되기에 장애인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다를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월간지 <함께걸음>을 연구 분석하여 장애 전문 언론 속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주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 주류 언론의 기능이었다면, 장애 전문 언론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은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였고, 언론 속 장애인관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근거로 제작된 평가지침을 활용하여 장애 전문 언론 <함께걸음>에 드러난 장애인관을 분석하였고, 시기별로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함께걸음>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통사적 연구로서의 맥락분석과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1. 장애인관의 변화와 언론

학계에서는 장애인관 또는 장애 패러다임이 개별적(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한다(김진우, 2007). 여기서 개별적 모델이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문제해결의 초점도 장애인 개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개별적 모델에서는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그 처방과 진단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에서부터 생사의 문제나 주거, 교육의 정도까지 결정된다. 따라서 이를 의료적 모델이라고도 하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개별적 모델에서는 손상(impairment)으

2) 에이블 뉴스, 함께걸음, 한국장애인신문 및 KJB 방송, 한국장애인방송국, 인터넷한국농아방송, 희망방송, 마포 FM 장애인라디오, 장애인문화방송, 한국장애인 it신문, 비마이너, 오늘뉴스, 웰페어 뉴스, 오픈웰, e장애인신문, 위캔뉴스, 와이뉴스, 대한장애인신문, 온뉴스, 장애인 생활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충북장애인신문, 충남 장애인신문, 경기도 장애인 신문, 강원 장애인 신문, 전북 장애인 신문, 서울장애인정보신문, 세계 장애인예술 스포츠 신문

로서의 장애가 강조되며, 손상이 회복되면 장애의 문제가 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장애를 진단하고 분리하고 특수하게 다루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최선이자 최고의 접근법이 된다. 이러한 개별적 모델의 접근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십 수 년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창조된 문화적 정치적 집합체로서의 장애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장애 개념은 손상 자체보다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Oliver, 1996). 사회적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이 관점에서, 장애는 손상의 개념을 넘어서는 복합체로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약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지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상”이라는 범주를 정해두고,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억압하고 차별한 것이 장애라고 보는 관점이다(전지혜, 2014). 이 사회적 모델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사회구조물, 사회체제와 법질서 등이 문제가 되며, 장애 문제 해결의 초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두고 있다.

물론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차원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Oliver(1990; 1996)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무엇보다 장애인 집단의 연대가 중요했으며, 개별 장애인들의 경험이나 장애유형별 집단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장애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들간의 연합전선을 약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손상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의료 사회학자들이나 인간의 개별 경험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장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비판의 핵심에는 장애인들의 손상의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장애 연구와 현장에서 사회적 모델의 파급력은 상당했으며 장애와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복지제도, 고용, 교육, 도시 및 건축물 설계 등에 이르는 다수의 영역에서 재구조화작업이 일어났다. 서구에서는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 내에서 함께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의 일반적 삶의 리듬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는 정상화 개념이 실천적으로 적용되었고(Wolfensberger, 1992), 이것이 탈시설화 운동이나 자립생활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애인 권리운동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하여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이 강조되며, 교육의 영역에서는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시작되었다. 고용의 영역에서는 보호고용이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더불어 일반고용과 근로지원인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및 건축물 설계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보장이나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내용도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제도적 실천적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타 사회제도적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언론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보도를 하였을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식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주류언론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적이지 않은지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언론 표현을 위한 가이드북(2013)을 내놓기도 하였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의 언론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반 주류언론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개별적 모델의 관점에서 동정하거나 열등하게 취급하는 논조의 기사와 방송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변성애, 2003; 배현정, 2006; 안혜련, 2010; 서영남, 2013).

## 2. 장애와 언론에 대한 기존 연구

‘장애’와 ‘언론’에 대하여 이루어진 실증적 선행연구들을 찾아보면, 대개 주류언론들을 중심으로, 언론 속에서 장애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결론은 대부분 기존의 주류언론들이 장애에 대하여 상당수준의 왜곡과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연구인 서영남(2013)의 연구부터 보면, 그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주시청시간대 장애뉴스가 장애와 장애인을 조명하는 방식에 대하여 틀짓기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장애뉴스는 절대적 보도의 양에서도 크게 부족하며 보도꼭지 후순위 배치 등 주변적인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장애를 흥밋거리나 구경거리로 만드는 등 언론이 장애에 대하여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카메라 기법과 편집 양식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손상된 부위를 반복 노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시도인데, 이는 우리 사회의 언론의 보도수준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은 커녕 “괴물 서커스”를 통해 시청률만 올려보려는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 비판하였다.

배현정(2006)은 사회적 역할 가치화론에 입각하여 2004년 1년간의 기사를 대상으로 오마이뉴스와 조선일보에서 장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오마이뉴스는 장애인의 권리주장 및 촉구를 위한 고발진단 기사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반면에 조선일보는 성공한 장애인의 극복담과 미담에 관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논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오마이뉴스가 상대적으로 장애에 대하여 긍정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두 언론 모두 장애관련 용어 사용이나 인식

에 있어서 부적절한 이해가 지적되었고 장애에 대한 후진적 보도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변성애(2003)의 연구는 1988년에서 2002년까지 총 15년간 4월과 12월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겨레 신문을 분석하였는데, 미담 및 장애관련 행사 소개기사가 다수를 이루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진보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손상만을 강조하는 용어사용이 다수를 이루었다고 비판하였다. 진보언론으로 알려진 한겨레 신문에서도 장애에 관해서는 진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안혜련(2010)은 일반신문(조선일보와 한겨레)과 장애인 신문(에이블 뉴스)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장애운동의 주요 패러다임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신문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장애계의 이슈가 되었던 주제별로 기사들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사분석, 장애인 LPG 보조금에 관한 기사분석, 탈시설에 관한 기사분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기사분석 등 7개 주제가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장애계의 이슈가 되고, 중증장애인 중심의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적 동정적이기 보다는 인권적 접근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장애 전문 언론이 타 주류언론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대체로 장애인을 동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한겨레에서는 차별받는 소수자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에이블 뉴스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사회인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에이블 뉴스는 장애인의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주체적 참여, 장애인의 자립정보제공이 창간이념으로 표명된 만큼 장애인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분석되었다. 장애 전문 언론을 기존의 일반 언론과 비교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논조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에서는 장애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시선이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논의가 장애학자 및 진보적 연구자들 사이에서 강조되었고(Charlton, 1998; Klobas, 1988; Longmore, 2001; Snyder & Mitchell, 2002), 이와 함께 주류 언론 속에서 장애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초점을 두는 실증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간 캐나다의 다수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된 Devotta와 동료들의 연구(2013)에 따르면, Toronto Sun과 같은 보수 언론은 여전히 특수교육이나 자선사업을 강조하는 기사를 담고 있으나, 다수의 언론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을 표현할 때 ‘장애’보다 ‘인(人)’을 강조하는 표현

(person first language)이 증가했고,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진보적 기사의 수가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 제정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39편의 장애인 고용관련 기사를 분석한 Scoffer와 Rimmerman의 연구(2012)에서는 장애인을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으로 여기는 기사 표현이 감소했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의료적 모델의 입장을 따르는 표현이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Haller 외 (2012)의 연구에서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간 캐나다의 7개 주 류신문사의 장애관련 보도를 의학적 관점, 영웅적 관점, 자선의 관점, 권리의 관점으로 4개 관점의 분석 틀에 따라 나누고, 장애를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기사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외국의 장애에 대한 언론의 태도 연구는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장애에 대한 그들 언론의 태도가 사회적이고 권리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는 등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후진적인 장애 태도에 머물러 있는 한국 주류 언론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연구로서 장애 전문 언론 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관의 변화를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발행처가 주로 장애 인권 운동 단체였음을 고려할 때, 장애 전문 언론이 장애운동의 도구였을 뿐, 그 자체로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그나마 2008년 장애인먼저실천본부의 언론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장애 전문 언론의 현실에 대하여 짧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 장애 전문 언론이 1980년대 말 장애인 여론을 주도하면서 장애인 운동사 및 장애인복지사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상당수의 장애 전문 언론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다가 폐간되거나 기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속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 전문 언론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전문 언론인 <함께걸음>속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분석하여 주류언론과 달리 장애 전문 언론이 어떻게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지 26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여러 환경적 변화와 어려움을 견뎌온 의미 있는 장애전문 언론인 <함께걸음>의 시대별 특징을 분석하여 그 나아갈 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 대상

장애전문 언론 속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패러다임 내지는 인권적 패러다임이 보다 잘 반영되었을  
 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5년의 한국장애계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함께걸음>에 대하여 대략 5년 주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전체 기사의 목차를 분석  
 하였다. 시기구분은 1988년에서 1992년(5년), 1993년에서 1997년(5년), 1998년  
 에서 2002년(5년), 2003년에서 2007년(5년), 2008년에서 2013년(6년)으로 나뉘  
 다. 이는 1, 2차 아태 장애인 10년 (1993~2002년, 2003~2012년)의 시기구분과  
 도 일치하고, 정권 교체 시기와의 일치하여 정책적 사회적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분기점으로 적절할 것이라 판단했다.

## 2. 분석 방법

### 1) 시기별 주제 유목 분석

각 시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시기별 기사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  
 사의 내용을 분석하기에는 26년의 기록이 상당한 분량이라 기사목차를 중심으로 논  
 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5717개의 기사제목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일반적인 시  
 기별 기사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유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기사의 주제영역별 유목

기사 수	해당 기간별 기사의 수
기사 주제	1. 개인사적 스토리텔링: 개인의 삶에 대한 기사로서, 인터뷰 기사까지 포함 2. 제도, 권리주장: 장애인 관련 법안 복지 대책 안, 각종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 도 등에 관한 내용 (인권, 복지, 해방, 각종 제도 관련 내용일 경우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함) 3. 문학작품 및 장애문화: 시, 소설, 수필 등 장애와 관련된 문학작품들을 기사로 제공할 때 이에 해당함. 또는 장애코드로 읽는 영화이야기나 장애인 당사자들 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 4. 정보제공: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사

### 2) 기사 목차의 논조 분석

기사목차의 논조 분석을 위해서는 UNESCO에서 발간한 <장애인에 관한 사회인  
 식 핸드북>에 의거하여 작성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지침  
 (2010)을 활용하여 수정 적용하였다. 아래 표2에서 세부 유목을 볼 수 있다. 각 발

행 호수별로 해당유목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기사의 비율을 계산하여 얼마나 장애 인권적이며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지 해당 호수별 기사의 비율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기간별 점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함께걸음>의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비율점수가 높으면 장애인권적이자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표 2>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관련 기사의 논조 판단 지침

1.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사람’을 부각시켜야 한다.
2. ‘손상 부분’이 아닌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손상 부위나 성취, 어려움 등을 감정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4. 강하고 특별히 성공한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평범한 장애인에게도 공평한 배려를 해야 한다.
5.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무시하고 한가지 유형의 장애인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장애에 대해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유형의 장애도 있다는 것을 전체해야 한다.
6. 장애인은 열의도 없고 동정의 대상이며 멀리해야 할 사람들로써 모두 같은 동질의 집단이거나 단지 의료대상자쯤으로 보는 보통의 부정적인 시각에 동조해서 그것을 고정화시켜서는 안된다.
7.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성숙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맥락 분석

시기별로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함께걸음>이 어떤 특징을 보였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해석하기 위해서, 맥락연구(contextual study)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맥락연구는 추이를 분석할 때 새로운 현상이나 변화과정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현상이 어디서 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 즉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역사 정치 경제 맥락을 분석하여 변화의 의미심장한 환경적 맥락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기사 주제의 유목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기사의 유목 분포의 증감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맥락 분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하였고, 기사목차의 논조 분석과 함께 목차의 텍스트 분석을 하면서 시기별로 장애전문잡지인 <함께걸음>이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맥락분석과 논조 분석은 다소 텍스트 분석을 통한 질적연구에 가깝다. 따라서 현상 이면에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질적 연구로서의 결과 분석과 글쓰기를 시도할 때에는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 입각하여 이를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 연구자 외에 2명의 보건과학과 대학원생들이 분석에 관찰자로 참여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개별 분석 유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 주 연구자의 코딩이 장애학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다.

## IV. 연구 결과

분석결과 26년간의 <함께걸음>에 나타난 기사의 주제 유목별 분포는 표 3에 나타나있다. 전반적으로 장애관련 제도 및 권리주장과 관계된 기사가 28.25%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창간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함께걸음>이 출간된 배경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함께걸음>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훌륭한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건전한 자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 장애우<sup>3)</sup>들의 희망찬 내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들의 권익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제도나 권리주장과 관련된 기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사는 초기에는 다소 높았으나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기사제목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개인의 장애 극복이나 고통속에도 희망을 갖는다는 개인사적 고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3년 이후의 개인사적 스토리텔링은 주로 자립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열심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 성격이 구별된다. 문학작품 및 장애문화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창간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

3) ‘장애우’ 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친구(友)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쓰여졌으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 대하여 지칭할 때 어법상 맞지 않으며 비장애인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비판받았다. ‘장애우’ 가 아닌 ‘장애인’ 이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는 기관명에 ‘장애우’ 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며, 보통명사로서의 ‘장애인’ 대신, 고유명사로서의 ‘장애우’ 를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단, 2003년부터 장애인을 이르는 용어사용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함께걸음>의 각 호 목차 하단에 “장애인과 장애자의 또 다른 표현으로 고통 받는 모든 장애우들의 벗으로 자리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걸음이 만든 말” 이라고 ‘장애우’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와 소설 수필등의 문학작품들이 실렸는데, 1998년도 부터는 문학작품이 실리지 않았다. 다시 2003년 이후 장애계의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애인들이 제작하는 영화이야기나, 장애의 코드로 읽는 사회문화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사의 대상이 되면서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정보제공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해당유목별 분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쳐 장애계의 권리운동도 다소 덜 행해졌거나, 발간주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정치적 내용이나 논조의 기사를 줄이지 않았을까 한다.

<표 3> 기사의 시기별 주제유목별 분포

연도	기사 수	개인사적 스토리텔링	제도 및 권리주장	문학작품 및 장애 문화	정보제공
1988~1992	723	12.03%	30.15%	11.89%	20.47%
1993~1997	1048	19.27%	22.66%	2.08%	27.34%
1998~2002	1132	6.67%	17.62%	0%	24.76%
2003~2007	1290	7.91%	29.77%	6.51%	19.53%
2008~2013	1524	7.94%	37.91%	9.39%	10.47%
Total	5717	11.83%	28.25%	7.41%	20.78%

인권적 접근 내지는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관련 기사의 분포는 V자형의 분포로 나타났다. 권리주장과 제도에 대한 기사의 분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장애인 올림픽 이후에 다시 살아나던 장애인 권리 투쟁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시대상과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증 장애인 중심의 권리운동이 활발해졌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을 전후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특수교육에 관한 법,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사회적 모델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었는데, 이 때를 전후로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함께걸음>은 더욱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기사의 논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가까울수록 그 비중이 높아져서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제도개선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기사가 아닌, 개인사적 이야기의 기사에서조차, 사회적 모델에 바탕을 둔 기사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2006년의 두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장애는 자연스러운 거죠”, “시각장애인은 북을 칠 수 없다는 편견이 걸림돌이었죠” 라고 나타나 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나 극복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회

의 인식이 문제였음을 고백하는 낚임스라서 더욱 논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4> 사회적 모델의 논조를 보이는 기사 분포<sup>4)</sup>

연도	기사비율 (%)
1988~1992	24.20
1993~1997	15.63
1998~2002	9.52
2003~2007	26.05
2008~2013	34.29
Total	22.44%

마지막으로 기사 제목을 코딩 분석하면서 파악되는 추이나 내용전환을 통해서, 시기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맥락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포괄적으로 해석해보았다. 1988년에서 1992년의 <함께걸음>은 “장애해방을 위한 투쟁 고취 문헌”이었다. 목차 상단에도 “장애해방염원”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을 만큼, 억압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투쟁적인 논조의 기사도 다수 있었다. 장애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개혁을 요구함(예: 1992년 1월호의 “자립과 평등을 위한 DPI 운동”, 5월호의 “특수교육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등)과 동시에,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협회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들도 있었고(예: 1992년 4월호, “촌지에 영수증 위조까지 앞날 캄캄한 재활협회”), 장애계 내부의 계급문제를 다루는 기사도 있었다(예: 1992년도 7월호의 “장애우 속의 또 다른 장애”). 즉, 장애억압적인 사회에 대하여 장애해방 운동을 시도함과 동시에, 장애계 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 성찰과 정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기사들은 “결의대회”, “해방”, “투쟁”, “인권”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함께걸음>은 장애 해방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는 교육서이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투쟁 고취서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사회적 모델의 논조를 보이는지의 여부는 각 발행 호수별 기사 제목의 총 수 대비 사회적 모델의 견지를 보이는 기사 제목의 수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특정 논조를 보이지 않는 제목들도 다수이므로, 평균 22.4%가 사회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로부터 77.6%가 개별적/의료적 모델의 논조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없다. 본 결과표에서는 시기별로 사회적 모델의 논조를 보이는 기사제목의 추이를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3년에서 1997년 동안의 <함께걸음>은 “장애인의 생활밀착형 정보지”였다. 투쟁이나 해방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어지고 ‘통합’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었으며, 번역서 연재 코너도 앞선 시기에는 “장애해방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장애인에 대한 조사”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독일 등지의 해외 장애인들에 대한 기사도 보이는데, 한국 내부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해외로 돌려,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소 중립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소 격정적인 이전 시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중립적 논조의 정보제공지의 성격이 짙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민요기행, 영화이야기, 여행지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고, 1995년도에는 수화 배우기 코너가 만들어지고, 상록수나 다운회와 같은 모임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장애인계 내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보인다. 1996년 스포츠나, 건강, 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거시담론이 아닌 일상생활에 밀착적인 정보제공이 더욱 늘어났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민주택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 철도할인 정보 등을 기사화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다른 기사분포에 비해 정보제공의 비중이 27%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이 시기의 <함께 걸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지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기사제목에서도 장애명칭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점과, 자기 고백적 스토리텔링에서도, 장애극복기나 투쟁기가 아닌, 일상에 대한 이야기나 다소 긍정적 에너지를 담은 내용으로 바뀐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전 시기의 기사에서는 “시해도 동정도 거부한다 (1989년 5월)” 또는 “희망, 저편을 바라보며(1989년 5월)”와 같은 저항정신이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반면, 같은 주제유목에 해당하는 개인 인터뷰 기사인 이 시기의 기사들은 예를 들면 “세상의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1994년 2월)”나 “돈벌고 사랑하며 살거야(1994년 7월)”, “우리 신랑만 잘 먹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996년 3월)”라는 기사의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글의 논조가 개인화되고 저항보다는 긍정적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저항 언론에서 생활공유 및 정보지로 전환된 1993년이라는 분기점은 1차 아태 장애인 10년이 계획되고 실행되던 시기였는데, 사실상 한국 장애인 권리운동의 역사에 비추어 해석해 볼 때, 다소 장애인권리운동이 약화되던 시기였다. 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운동가들이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애인 권리운동도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이고, 뜨거운 장애해방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장애 운동의 주체가 대학생이나 사회운동가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장애인의 경험과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입지를 세웠던 시기였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기이며, 1988년 <함께걸음>의 창간도 높은 장애해방운동

의 열기 속에서 가능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1980년대 후반의 강한 장애인권운동의 모습이나 정신이 <함께걸음> 목차 분석을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는 타영역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애인 권리운동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권리운동의 약화된 모습이 또한 <함께걸음> 목차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권리주장이나 제도, 현실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글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생활 밀착적 정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1998년에서 2002년의 <함께걸음>은 “개인 수준에서의 일반 잡지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기사로 제공하기도 하였고, 1999년에는 재테크 관련정보가, 2000년에는 테마 에세이, 그림 이야기와 같은 코너도 신설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라는 코너도 나타났는데, 일반 잡지와 유사하게 독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것이다. 타 유목에 비해 정보제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시기였으며,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따른 기사 비중이 가장 낮은 시기였다. 상당히 객관적 논조의 기사 제목들이 주를 이루는데, 예를 들면 1999년 연재 글의 목차는 “해외의 장애인”, “장애우 체육이야기”, “수중 치료이야기”, “세상읽기”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 매우 절제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간소화되고 절제된 목차의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장애 인권적 논조인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논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시기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는 IMF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우선시되면서 복지나 인권에 대한 강조가 장애인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어, 더욱 간소화된 중립적 문구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도 발간주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성격변화와 연결하여 이 현상을 해석해 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이 이루어졌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행보는 시민단체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도정치 안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대표들이 장관이나 국회의원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단체도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신사회운동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시민운동의 제도정치화라는 맥락과 흐름 속에서 장애계의 참여연대라는 별명이 붙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유사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과 함께 해석해보면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함께걸음>이 비판적 권리운동의 속성을 보이지 않고, 정보제공지의 기능에 충실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사회 수준에서의 일반 잡지화”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애 이외의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전에 비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전 시기에는 문화나 정보제공 영역이 강조되면서 개별적인 수준에서 일반 잡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면, 2003년 이후에는 일반 언론의 사회면 이슈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4년 8월에는 이라크 평화운동가의 한국방문기를 다루기도 하고, 2006년에는 쌀시장 개방이나, 양심

적 병역거부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의 장애인들에 대한 글도 제 1세계가 아닌, 제3세계로 확대된다. 2003년 미얀마나 티베트의 장애 인권 실태를 보고한 것이 그 예이다. 즉, 일반잡지들에서 다루는 영역들도 함께 다루되, 사회적 차원의 비장애 이슈들까지 다루고 있어서 사회수준에서 일반 잡지화 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생활 밀착적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영화읽기, 음악 여행 등의 코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수다방을 만들어서 “명절이야기”나 “연애이야기”를 모으기도 하였다. 장애인에게 특화된 느낌 보다는 일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흥미 있는 일상과 행복을 강조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예: 2007년 2월 “우리도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흥미있는 가벼운 글들이 독자들에게 사실감 있게 다가가는 경향을 보이는 시기였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장애 전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함께 걸음>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으리라 판단된다.

2003년에서 2007년의 <함께 걸음>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표현들이 다시 많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약화되었던 장애인권운동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강렬하게 다시 일어난 시기이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운동이 장애인권운동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를 <함께 걸음>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적 모델의 논조가 26%를 상회하는데, 이전 시기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재코너를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지속시켰는데, 이 역시 장애계에서 더욱 억압되었던 이들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7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역사적인 시점이기도 한데,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논조가 높다는 것은 활발한 장애계의 여론수렴활동 및 법제화를 위한 투쟁 등이 이 시기에 <함께 걸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함께 걸음>은 “사회 수준에서의 일반 잡지화”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의 장애계의 여론을 만들어내고 반영하는데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에서 2013년의 <함께 걸음>은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운동체”적 기능이 돋보인다. 자립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하게 될 장애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권리주장 및 제도 등의 기사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났고, 정보제공 영역은 줄어든 반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연재코너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개인사적 스토리텔링과도 비교되는데, 당사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자세를 인터뷰하거나 서술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가진 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칼럼의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오피니언”란으로 구분되는데 김형수의 세상보기, 장애인인권이야기, 이미정의 발달장애와 함께하는 세상, 여준민의 탈시설이야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피니언 영

역의 확대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내 생활을 가능하도록 사회인식에서부터 법, 제도 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영역이다. 정보제공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중립적이고 절제된 표현을 주로 썼던 1998년에서 2002년의 시기와는 매우 구별된다. 목차 전반에 걸쳐 사회적 모델의 장애관점이 문장의 형태로서 특징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애 자부심을, 장애인 당사자와 공감하는 드라마를 꿈꾼다(2013년 12월)”, “장애인 차별의 대단한 갑, 놀이공원 (2013년 5월)”, “그들은 충분히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2012년 8월)”, “자, 이제 탈시설을 말하자 (2011년 10월)”를 예로 들 수 있다. 오피니언란으로 대변되는 이 시기의 <함께걸음>의 궁극적 지향점은 처음 창간되었던 때와 동일하게 장애해방에 있을 것이나, 그 표현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격한 감정적 표현들이 누그러지고, 거시적 담론으로서의 해방운동을 요청하던 수준에서 한 단계 구체화 되어,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운동”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 영역에 대한 강조도 나타났는데, 지적 장애인이 제작한 영화가 상영되고,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연극과 음악 등이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의 코드를 통해 사회전반의 문화를 재해석하는 형태의 글들도 등장하였다. 부천영화제나 사랑의 가족 등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 그 예이다(2008년 8월). 2009년 조항주의 아랫도리 풍경과 같은 코너도 신설되었고, 2012년에 접어들면서 개인사적 스토리텔링의 기사들에 장애인보다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딱딱한 기사들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을 덜고, 독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2008년에서 2013년의 <함께걸음>은 장애인들의 세상살이를 위한 다양한 시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고, 지역사회 생활운동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함께걸음>은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 논의 사항들을 통해 볼 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더욱 의미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주류언론들의 태도와 구별되는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언론에서는 장애에 대한 기사의 비중도 낮을 뿐더러, 그 관점도 손상으로서의 장애를 강조하거나, 장애인을 보호 또는 동정의 시선으로 주로 다루었다. 이에 반하여 <함께걸음>은 에이블뉴스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인권을 강조하는 성격을 보이며, 장애인권운동에 이바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언론이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사회문화적 규범의 전파자이며,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사회에 순응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류언론 관점의 기사는 장애인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최정호, 1997; Oliver, 1990, Barnes, 1992; Charlton, 1998). 이러한 상황에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갖는 <함께걸음>과 같은 장애 전문 언론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주류언론에 대하여 인권 중심적인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 입각한 용어나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주류언론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는 장애와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통찰과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사회의 오해와 편견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주류신문에서 주변화되고 사람들의 의식세계에서 자연히 소멸될 수 있는 장애 이슈(Tuchman, 1978)를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 미디어의 형태로 장애인권운동을 하고 있음을 창간때부터 밝혔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볼 때에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내고자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외되고 억압된 이들의 생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점에서 <함께걸음>은 그 이름처럼, 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는 큰 장점을 지닌다.

둘째, 장애계의 언론 매체로서 때로는 실시간 온라인 장애 전문 언론인 에이블뉴스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함께걸음>은 그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에이블 뉴스는 인터넷 대안언론으로서 2002년 12월에 창간되었기에,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장애인권운동의 활발해지는 시기와 맥을 같이 해왔고 미디어로서의 장애운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장애인계의 소식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함께걸음>은 에이블뉴스와는 속성이 다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인쇄 매체이며,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뉴스가 아닌, 필자들의 정리된 생각들을 공유하는 월간지이기 때문이다.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둘 다 저항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언론이나, 에이블 뉴스가 속도의 장점을 갖는다면, <함께걸음>은 정리된 형태로 여론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간 온라인 매체가 성행하는 가운데, 월간 형태의 인쇄매체와 온라인 매체로 병행 제공되는 <함께걸음>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와 종이 매체의 성격이 다르고 장애인구의 70.9%가 종이 매체에 익숙한 만50대 이상임을 고려해 볼 때(보건복지부, 2012), 종이 매체로 공급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또한 무료로 장애인 개

별 가정에 배포되고 있어 장애계의 여론을 월간으로 정리하고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함께걸음>은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의식고양 및 역량강화를 해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장애인권운동가들이나 장애학자들은 권리의식고양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한다(White, 2005; Balcazar et al., 2012).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온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는 내재된 억압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사회가 강요한 것임을 깨닫는 의식고양이 없다면, 장애와 관련하여 주류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식고양을 통해서 스스로가 열등하지 않으며, 장애는 아름답고 당당한 것이라는 점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 개인의 삶에는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다. 장애인들의 자조활동이나 장애학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을 통해 의식화 될 수도 있지만, 집밖에 나오지 않는 다수의 장애인들이나, 혹은 장애정체성을 거의 갖지 않는 경증 장애인이거나 내부 장애인들에게, <함께걸음>과 같은 장애 전문 언론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폭넓고 거부감 없는 의식의 고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투쟁하러 가자고 할 때 동의하는 장애인 이웃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함께걸음>을 구독하자고 할 때 상대적으로 다수의 장애인들은 거부감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게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리된 글들을 혼자서 보면서, 장애와 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의식화를 경험할 수 있기에, 숨어있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함께걸음>은 권리의식고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에는 일반잡지화되고, 흥밋거리들도 다루고 있어서, 새로운 독자층 확보에도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2. 결 론

본 연구는 <함께걸음>이 26년간 발행되면서, 그 속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또는 인권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함께걸음>의 시기별 특징을 해석해보았다. <함께걸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장애인권운동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980년대 후반의 강한 장애인권 해방운동의 영향이 컸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권운동이 약화되자, <함께걸음>도 생활밀착형 정보지화 되고, 개인수준에서의 일반 잡지화 되는 경향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과 장애인권운동이 거세지면서, 다시 실천적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운동체적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함께걸음>이라는 장애 전문 잡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패러다임을 고수해왔다고 보인다. 생활밀착형 정보지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던 때에도 진보적 장애패

러다임의 정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도 주류언론들의 장애에 대한 동정적 시혜적 차원의 접근과 구별되는, 저항언론의 역할을 해 낸, 의미 있는 장애 전문 언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우리 장애계의 소리를 모은 흔적이자 역사를 보여주는 매체인 <함께걸음>에 대한 분석은 장애 전문 언론이 주류 언론과는 다른 장애인관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장애 전문 언론의 통사적 차원 흐름 속에서 특징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목차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분석과 다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 여건상 26년간의 모든 기사들을 분석할 수 없어서, 추이를 보기 위하여 목차 분석을 시도 하였으며, 그 자체로도 유의미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둘째, 투쟁적 혹은 저항적 논조나 용어가 인권적 시각이며, 사회적 모델에 근거하여 장애를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회적 모델이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방이라는 용어를 인권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용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용어나 논조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연구자로서 느껴지는 불편감도 있다고 밝히는 바이다. 노동운동이 강했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로서의 정확한 인지와 상관없이 저항적 용어가 사용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기존 사회나 제도가 의료적 모델에 근거해 있다는 전제가 성립 또는 입증될 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 분석 시에 관찰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자료를 구분 코딩하였기에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넷째, 연구의 특성상 외피적 정보 분석의 성격이 있어 연구논문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 전문 언론 발행 담당자 및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장애전문 언론의 현실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사회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도 <함께걸음>이 장애 전문 언론으로서 고유의 가치를 잃지 말고, 억압된 이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언일 수도 있으나, 장애 전문 언론을 연구한 연구자로서 <함께걸음> 발행처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여론을 형성하고 주류언론과 구별되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언론으로서의 독자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정부지원으로 발간되는 현실 속에서 비판적 시각을 갖춘 독립된 언론 매체로 기능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애 인권 운동계의 정치적 지형과 이슈를 떠나, 장애 전문 언론의 가치와 역할을 고려하여 독자적 기금 마련을 위한 장애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종이 매체로서의 <함께 걸음>과 인터넷 매체로서의 <함께걸음>의 기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인쇄 매체는 월간으로 정리된 장애계의 여론을 담고, 인터넷 매체로 제

공되는 <함께걸음>은 지면의 한계가 없는 특징을 살려서 쌍방향적인 독자와의 소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쌍방향적 언론으로서 <함께걸음>의 이름처럼, 장애인과 더욱 가까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걸음>이 장애계의 미래의 역사까지 담는 장수 언론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진우 (2007).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의의와 한국 사회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6. pp.183-209.
- 변성애 (2003). 신문의 장애 보도경향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현정 (2006).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론을 활용한 장애관련 보도행태에 대한 내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1-8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영남 (2013). 장애뉴스: 틀짓기 이론과 심리적 언어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시청시간대 공중파 장애인 뉴스분석.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 재해석** Vol. 4. 2-46.
- 안혜련 (2010). 일반신문과 장애인 신문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0).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2010 모니터보고서 대중매체가 말하는 장애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http://www.wefirst.or.kr/korean/viewforum.php?f=86>
- 전지혜 (2014). 장애사회 변화를 위한 복지정책: 장애학위 관점. **복지이슈 투데이** Vol. 13. pp. 8.
- 최정호 (1997).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2013) 올바른 장애용어 및 표현을 위한 언론 가이드북.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 Barnes, C. (1992). *Disabling imagery and the media: An Exploration of the Principles for Media Representations of Disabled People.* Keele University Press
- Balcazar, F., Suarez-Balcazar, Y., Adames, S., Keys, C., Garcia-Ramirez, M., Paloma, V. (2012). Case Study of Liberation Among Latino Immigrant Familie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1), 283-293.
- Bennett, W. L. (1988).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Y: Longman.
- Charlton, J. (1998) *Nothing about us without u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votta, K., Wilton, R., Yiannakoulis, N., (2013). Representations of disability in the Canadian news media: a decade of chang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5(22), 1859-1868.

- Haller, B., Rioux, M., Laing, A., Vostermans, J., & Hearn, P. (2012). The place of news media analysis within Canadian Disability Studies, *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1(2), 43–74.
- Klobas, L. (1988). *Disability Drama in Television and Film*. Jefferson, NC: McFarland & Co.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Longmore, P. (2001). Screening stereotypes: Images of disabled people. In Anthony E. and Christopher S.(Eds.), *Screening Disability: Essays on Cinema and Disability* (pp.1–17).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Basingstoke, Macmillan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NY: Macmillan Press Ltd.
- Snyder, S. & Mitchell, D. (2002). Body, Genre, and the New Documentary Disability Cinema. In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Experts Meeting Moscow, Mass media and Disability* (pp. 24–31). Russia.
- Soffer, M., Rimmerman, A., (2012). Representation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employment-related issues in the Wall Street Journal (1990–2008): a feasibilit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35, 184–186.
- Tuchman, G. (1978). The symbolic annihilation of women by the mass media. in G. Tuchman, A.K. Daniels, & J. Benet (Eds). *Health and home: Images of woman in the mass media*. (pp. 3–38).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G. (2005). Ableism. In G. Nelson, & I. Prilleltensky(Eds.), *Community psychology: In pursuit of liberation and well-being* (pp. 405–425). NewYork: Palgrave Macmillan.
- Wolfensberger, W. (1992). *A brief introduction to Social Role Valorization as a higher order concept for structuring human services* (Rev. e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Training Institute for Human Service Planning, Leadership and Change Agenc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magazine  
journalism: Focused on Korean disability magazine  
"Cowalknews"

Jeon, Jihy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role of disability magazine journalism in the lens of disability paradigm shift from medical model to social model. The 5,717 content lists of "Cowalknews" were examined by basic statistics and contextual analysis methods. The Korean disability magazine has played various roles across time. It mainly focused on the role for educating disability rights and triggering disability movements at the late 1980's, but focused on the role for informing disability benefits, living information, and culture events in 1990's. The role change might be influenced by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issue of publisher. After 2000s, the disability magazine focused on the role of promoting disability awareness again and informing policie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independent living. Generally, the perspective of social model has been dominant in "Cowalknews" for 26 years. On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disability magazine journalism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Disability journalism, Disability magazine, Social model, Disability right movement, Cowalknews

---

논문 접수: 2014. 08. 05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11. 05